



APLMF 기술훈련차 베트남을 다녀와서



계량계측과 공업연구원 나기형

4월이 시작되자마자 아 태평양 포럼에서 주관하는 기술훈련이 시작되었다.

비자등 저출분야에 대한 기술훈련이었다. 내가 최근에 발을 들여놓은 곳도 계량관련 부서였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량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물론 중간에 몇 년은 외도를 했었지만 그것은 본인인 내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 옛날 화열을 같이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제는 나 혼자 뿐이다.

옛날 2국 4과에서 담당하던 계량업무가 아니었던가?

어쩌다 이렇게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단 말인가...

이런저런 생각 끝에 살며시 잠이 들었는데 어렴풋시 컷전을 스치는 여자 아나운서의 맨트 잠시 후 하노이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오나.....

정신을 차려 밖을 보니 김감하기만 하다.

얼마 후 비행기 동체의 심한 흔들림을 느끼면서 착

륙했음을 알았다.

생전 처음으로 밟아 본 월남 땅 하노이 공항인 것이었다.

착륙 중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공항주위의 전봇대들은 우리나라보다 여러 면에서 후진국이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대합실을 나오자마자 내 이름을 쓴 피켓을 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는 호텔에서 픽업 나온 운전기사였다.

나는 그가 안내하는 곳으로 가서 차를 탔고, 차는 어둠을 향해 질주해 가기 시작했다.

구불거리는 공항로를 빠져 나오자 얼마 안 가서 제법 그럴 듯한 도로가 나왔는데 왜 오토바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무리 기적을 울려도 좀처럼 비켜주질 않았다. 편도 2차선에 도로에서 차선에 관계없이 오토바이들이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최



소한 베트남보다는 몇십배는 앞서 있음을 느꼈다.

하노이 시내를 들어오자 오토바이 행렬은 피크를 이루고 있었다.

현지 시간으로 자정이 다되었는데도 웬 오토바이들이 그리 많은지 확연히 느낄 만큼 매콤한 매연 오토바이들의 소음과 연신 울려대는 운전자들의 경적소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한시간쯤 왔을까?

차가 서는 곳은 침침한 골목언저리 기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센웨이 호텔이란 간판이 보였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호텔에 들어와서 예약을 확인하고 방에 들어가 보니 조그마한 바구니에 과일이 몇 개 담겨져 있었다.

사과와 바나나는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봤고 처음 보는 듯한 과일이 있기에 시장기도 해결할 겸 우선 먹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놈의 과일은 깎아서 먹는 것인지 그냥 먹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냥 먹기로 했다.

한입을 깨물으니 시큼하고 뚝은게 보기와는 영 딴 판이었다.

대충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닭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아침 6시였다.

시내의 한복판에서 닭울음소리라니 옛날 시골집에 온 기분이었다. 커튼 사이로 월남 특유의 밀짚모자를 쓴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타국에 왔음을 실감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아침식사를 하고 시내 구경을 하기로 했다.

호텔 로비에서 관광코스를 들고 카피한 지도도 한

장 얻었다

여기에선 아직도 지도를 카피해서 쓰고 있었다

길거리도 구경할 겸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길을 걷는데, 하노이라는 도시가 생각보다는 너무 초라한 도시임을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길거리 보도블럭 위에 목욕탕에서나 있음직한 의자 서너개를 놓으면 식당 겸 술집이 되고,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는 사찰의 담벼락에 거울을 걸어놓고 이발하던 이것이 곧 이발소가 되었다.

기온은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더운 편이었는데 습기가 많아 무척이나 후덥지근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한나절을 걷다보니 기진맥진하여 점심식사를 하려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렸으나 식당은 좀처럼 찾을 길이 없었다. 식당 찾기를 포기하고 시내버스를 탈 의양으로 버스를 찾았으나 버스는카영 택시도 구경하기가 힘들었다. 그러기를 얼마나 했을까 한참을 다시 걷다가 어렵게 택시를 타고서야 호텔까지 올 수가 있었다. 호텔에 들어와 대충 식사를 하고 피곤한 탓이었던지 이내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호텔 2층에 있는 교육장에 가보니 의자 몇 개와 실험용 교보재로 보이는 저울 몇 대가 놓여있었다.

무척이나 초라하다고 혼자 생각했다.

오전 9시가 되자 훈련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과 인사를 하고 하루 이틀 교육을 받다보니 친숙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교육생들 중 몽고에서 온 여자들이 있었는데 소련에서 유학하고, 한사람은 영어를 8개월, 다른 사람은 5개월 공부하고 왔다는 것이다.



기술표준가족

소련말과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무척 힘이 들었는데 용기 하나만은 대단하게 느껴졌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온 나에게 꽤 친근감을 표시했는데 국내 계량기 제조업체인 (주)카스라는 회사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국차에 대해서는 거의 한국 사람 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두명중 G. OTGONSUREN이라는 분은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한국차인 엑셀을 갖고 있다 하였다.

또 자기이름에 대해서도 남편이 부를 때는 OTGON이라 부르고 친구들이 부를 때는 SUREN이라 부른다는 말까지 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대부분의 저녁은 개최국인 베트남에서 제공을 했고 한번은 저녁식사를 하러 차를 타고 나가는데 분당○ ○백화점 차가 지나가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인줄 알고 누군가, 혹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하는 조바심에 찬찬히 들여다보니 월남 현지인들만 타고 있는게 아닌가? 웬일일까 해서 자세히 보니 차량의 번호판만 바꾼채 그냥 운행하는 것이었다.

마지막날 아침 일요일이었고 귀국행 비행기는 밤 11시 30분이 출발시간이라서 하룻베이라는 곳을 관광하기로 했다.

그곳을 관광하기 위하여는 차량 대절료를 포함하여 약 2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일본인 2명과 몽고인 2명이 같이 가기로 하여 1인당 40\$정도를 내고 갔다.

거리는 호텔에서 약 180km 정도였는데 시간은 3시간정도가 소요되었다.

가는 도중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차량들이었다. 가는 도중 지루함도 달랠 겸 지나가는 차량 10대 속에 한국차가 몇 대나 있는지 세어보았다.

대략 8대에서 5대 정도였다.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우리나라 차가 베트남의 구석구석을 휩쓸고 다니고 있었다. 아무튼 한국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며 이국 땅 멀리에도 우리의 손길이 뻗쳐져 있음을 알고 이 또한 국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내심 뿌듯함을 느꼈다.

언제 다시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노이는 순박하고 아직은 도시라기보다는 시골티가 풍겨나는 그러한 도시임을 느꼈으며, 교육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개최국으로써 성의를 보인 베트남 당국자의 성의에 감시를 표하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면 과연 나조차 베트남 사람처럼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본다.

